

익산시 벼 신품종 보급 확대

내병성 증진된 벼 품종비교시험포 15종 설치

익산시가 벼 신품종 보급을 확대해 지역 특화 품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우수한 기능성 신품종을 확대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판로 확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상기후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이를 극복할 신품종을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 시험사업으로 4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2년간 황등면 일원 100ha 면적에 신품종 미호벼를 보급하고 있다.

미호벼는 저아밀로스를 함유하여 쌀벼와 일반벼의 중간인 반찰발로 구분된다. 마치 쌀알에 쌀벼를 섞은 것처럼 찰지고 식감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신동진벼보다 출수는 늦으나 속기는 같고 쓰러짐에 강해 도복우려가 없고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해 복합내병성으로 기대되는 품종이다. 올해 GAP인증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아 신규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이다. 시는 신동진벼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내병성과 밥맛이 향상된 참동진벼도 올해 확대 재배한다.

참동진벼는 지난해 남상면·성당면·오산면 일원에 8.3ha 가량 재배됐으며 올해는 탐마루 단지 340ha, 시범사업 78ha 등 500ha로 확대 재배되고 있다. 참동진은 중만생 중대립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내병성이 증진돼 흰잎마름병에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진다.

여산면 일원에서 3년째 재배하고 있는 심리향벼는 전북농업기술원에서 2019년 개발한 신품종이다. 호풍벼와 도화향호를 인공 교배해 키가 작고 쓰러짐이 강한 품종이며 밥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심리향은 지난해 50ha에서 480톤을 생산했으며 전라북도 브랜드인 예담채 심리향으로 출시되어 온라인쇼핑몰(쿠팡 11번가, G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서해안 최고의 하계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선유도해수욕장이 8일 개장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군산시, 내달 16일까지 40일간... 이용객 안전관리·편의제공 중점

서해안 최고의 하계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선유도해수욕장이 8일 개장했다.

군산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총 40일간 개장 운영하고 해수욕장 내 물놀이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일상화복에 따라 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 안전관리와 이용객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평시, 성수기 구분없이 안전관리요원 18명을 상시 배치하고 폐장 이후에도 8월말까지는 적정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투입시켜 이용객의 익사사

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및 구조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용객들이 불편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파라솔 50여조를 설치해 장시간 햇빛 노출 차단 및 쉼 쉬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상봉 항만해양과장은 “올해 내무도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선유도해수욕장의 관광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명품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수욕장 기반정비 사업은 물론 관광화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행사는 개장 일주일 후인 오는 15일 개최 예정이며 의식행사는 줄이고 노래자랑 등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새 정부의 항만정책과 군산항의 과제’

2022, 포럼 · 토론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군산항 유관기관과 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 해운·항만·물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 정부의 항만정책과 군산항의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항만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군산항 활성화 전략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항발전협의회 등의 공동 주관으로 이뤄졌다.

포럼은 3건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김찬호 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새 정부의 항만정책 방향’, 최영석 전략기획실장(남성홀딩스)의 ‘국적선사의 디지털/ESG 실행사례 소개 및 군산항 디지털 접목 아이디어 제안’, 박주동 교수(경상국립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의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이뤄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항만정책에서 군산항이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한 고찰과 군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민간기업과 학계, 유관기관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배후지와의 연계망 구축 방안, 환적자동차 유지를 통한 자동차 환적지대로 군산항을 특화하는 방안 및 주변 항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

뤄졌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악화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군산항은 개항 이래 최대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해중부권 관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련된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포워더 및 물류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개항 이래 최초로 2천만톤 이상의 물동량을 유치하였으며, 올해에는 물동량 증가에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무선동작감지기,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의 안심용품 3종 세트를 무료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 홈세트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전월세 거주 여성 1인가구, 장애인 및 범죄피해자 여성 가구, 여성 한부모가족이며 자가소유자와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안심 3중세트는 무선동작감지기(귀가 전 외부인이 침입했는지 확인), 문열림센서(외부에서 문열림이 감지되면 연동된 스마트폰에서 경보음 발생), 휴대용 비상벨(위급상황 시 경보

음이 울리고 지인과 112에 문자 자동 전송)로 구성되며 여성들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고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산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범죄피해, 한부모 가정 등 신청자 현황 및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8월중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보건소, 무더위 속 만성질환 관리 주의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무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이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낮아지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심하면 정신을 잃는 열실신증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가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피하는 것이다.

당뇨병 환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농도가 진해지면서 혈당조절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덥기 많은 수박과 참외는 한두 쪽만 먹는 것이 좋다.

불볕더위가 삼한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실내 온도는 26~28도에 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외출해야 한다면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하고,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

보건소는 매달 첫째주 수요일 ‘혈관체크의 날’을 진행해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고혈압·당뇨 교실을 운영해 기초검진을 하고 만성질환의 올바른 이해와 관리의 중요성 식이요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아이스팩 재활용 ‘1석3조’ 큰 호응

익산시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여름철 및 온라인 배송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박스 등에 동봉되는 아이스팩 처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아이스팩 수거·세척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복지센터 8개소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있으며 약 5천 500여개를 수거했다.

수거된 아이스팩 중 재활용이 가능한 3천500여개를 전물시장, 신선 식품업체 등 아이스팩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공급했으며, 아이스팩 수요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신규 구매 비용 절감,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성료

군산시는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채현주)와 군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남준우) 주관으로 지난 8일 2022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내 46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내·외빈, 자원봉사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이번 행사를 빛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일선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문학 강사의 인문학 강의를 청강하며,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현직회장 채현주 센터장은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